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유 영 권

연세대학교

박 경 은[†]

세명대학교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을 분석해 봄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경험한 6명의 피해여성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파일은 모두 전사하여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인 현상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을 총 38개의 소주제와 12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피해여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과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으로 상담에 임하였으며, 자신에게 맞는 상담을 찾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전환’과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 ‘방어기제의 해체’와 ‘저항감과의 분투’를 경험하였고, ‘양가감정의 교차’와 ‘부정적 복합감정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죄책감의 감소’, ‘수용감의 증대’, ‘유대감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내담자 차원, 상담자 차원에서 각각 논의하였고, 상담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상담경험, 질적 연구, 현상학

[†] 교신저자 : 박경은, 세명대학교 교약대학,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술관 419호
Tel: 043-649-1662, E-mail: p4a7r4k3@semyung.ac.kr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20-60세의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자 88.5%(1770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김도연, 문화일보).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데이트중인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이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등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한 대응으로 경찰은 2016년 '연인 간 폭력대응 TF'를 구성하여 연인 간 발생한 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요청이 접수된 사례는 2015년 14건이었던데 반해 2017년 135건(이유진, 여성신문)으로 불과 1-2년 사이 10배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02-1366)'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후유증을 탐구하여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다.

데이트폭력(dating abuse)은 교제 중에 있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데이트폭력의 범주에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포함된다(Straus, 2004; Teen Voice,

2006).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낳는다. 피해여성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가해자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불안, 슬픔, 혼란감 등이 있다(안귀여루, 2002).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호소되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깊은 우울감이 있다. Stein과 Kennedy(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2/3이상(약 70%)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은 다른 심리 증상을 유발시키며(Banyard & Cross, 2008), 자살 사고 및 시도, 수면장애를 비롯해 알콜, 흡연의 증가와 기타 신체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Amar & Gennaro, 2005; Hathaway et al, 2000). 데이트폭력은 외상 경험으로 깊은 우울감과 함께(Anderson, Saunders, Yoshihama, Bybee, & Sullivan,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을 높여(Sabina & Straus, 2008)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 사고장애 및 신체적 긴장과 불안이 반복되는 과각성 상태를 경험하며, 위험한 상황에 맞닥들이지 않기 위해 사람이나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Walker, 2012).

피해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로는 폭력에 대한 높은 허용도(박하나, 장수미, 2012; 신혜섭, 2007; 장희숙, 조현각, 2001; Kaura & Lohman, 2009), 심리적·사회적 자원의 부족(송영주, 장현아, 2017; 서경현, 2009) 등이 있다. 심리적 자원에는 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관계적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 친구 등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시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Sousa, 1999).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다. 폭력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 또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교육과 지시는 피해여성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입 시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심리적 역동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개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광은과 이위갑(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면서도 폭력적인 대상에게 높은 애착을 보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 만족도를 느끼는 경우 현재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폭력적인 관계를 중단하고 심리적 후유증을 다루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여성과의 상담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들(최윤경, 송원영, 2014; 박하나, 장수미, 2012; 최윤경, 2012; 신혜섭, 2006)은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피해여성은 이후 다른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Foshee 등(2012)은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던 피해여성은 건강한 관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건강한 관계 방식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Nicolaidis, McFarland, Curry와 Gerrity(2009)는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상담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상담의 동기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Murray와 Graves(2012)는 상담자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안정감을 주며 신뢰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가람, 정남운(2008)의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공감과 위로, 따뜻함과 수용성은 피해여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반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신뢰와 안정감이 상담자와 피해여성 사이에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피해여성이 상담을 받았다면, 초기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상담을 지속하도록 만드는지, 초기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며, 피해여성은 심리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 강조되고 있는 안정감은 실제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상담자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한 개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피해여성이 실제적인 폭력의 위협으로 안정감을 느

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핵심은 힘과 통제(control)에 있기 때문에(Teen Voice, 2006), 피해여성은 가해남성에게 자신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빼앗긴 관계 역동을 지속해 왔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피해여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자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안정감에 대한 문제를 다루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종결한 상황이라면 상담자는 안정감의 문제를 내담자 스스로 드러내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안정감의 문제는 상담자와 피해여성 사이의 상호 교류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여성이 잃어버린 자신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회복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Murray et al., 2015). 따라서 피해여성이 상담에서 상담자와의 상호교류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며, 관계에서 통제력과 주도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심리적 고통 가운데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다. 피해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다른 존재로 구별 지으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Amar와 Gennaro(2005)에 의하면, 피해여성은 가해남성에게 통제력을 내어주면서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낮은 통제력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낮은 통

제력의 문제는 피해여성을 둘러싼 생활전반에 깊게 관여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안전하도록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하며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일 등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Murray와 Graves(2012)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 폭력에 대한 심리교육, 낮은 자존감 다루기, 자신의 대처전략 점검하기,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하기 등을 다루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존감의 문제는 피해여성의 더 깊은 심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로(Kasian & Painter, 1992),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피해여성들이 호소하는 죄책감, 수치심 등의 심리내적인 역동을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Jackson, Cram & Seymour, 2000; Walker, 2012).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죄책감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김도애와 이은화(2003)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죄책감은 친밀한 대상을 상실하게 될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역동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폭력의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돌리는 인식의 전환은 너무 이른 개입이 되어 피해여성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경은, 2017).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온 피해여성은 폭력의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자신의 희생과 인내로 가해남성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갖기도 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최윤경, 2012), 폭력적인 관계 이외에 다른 건강한 관계 경험이 부족하여 폭력적인 관계에서도 관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Kaura & Lohman, 2009). 이러한 현상은 폭력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을 높인다. 또한 폭력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가해자가 변화하거나 자신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갖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기도 한다(이정은, 2007). 특히, 한국 여성은 가부장적인 성역할 정체성에 따라 순종적이고 이타적인 여성상을 내사하여 가해자의 폭력을 간과하기도 한다(배수희, 2015). 이렇듯, 여러 연구를 통해 피해여성의 죄책감은 다양한 심리내적, 관계적,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urray와 Graves(2012)는 죄책감을 호소하는 여성과의 상담에서 상담자의 비판단적이며 지지적인 상담 환경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달리 말해, 상담자가 사건 중심으로 피해여성의 호소 문제를 듣거나, 피해여성이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충고하는 방식의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 피해여성의 죄책감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상담에서 상담자가 피해여성의 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하며 관계의 중단을 촉구할 경우 피해여성의 저항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 지시하는 개입은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피해여성이 폭력으로 인한 현재의 영향을 분별하고, 관계의 지속 및 중단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 실제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죄책감의 문제가 상담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소되어 나가는지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피해여성과의 상담에서는 죄책감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Murray와

Graves(2012)는 피해여성 상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 다루기, 실제적인 위협과 폭력의 문제 다루기,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 다루기, 감정 표현하기, 낮은 자존감 다루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하기 등이 다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상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담 기법들로는 폭력 경험으로 인한 외상을 다룰 때 인지행동적 접근이 활용되거나(Johnson & Zlotnick, 2009), 피해여성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변증법적 행동 치료(Iverson, Shenk, & Fruzzetti, 2009), 폭력에 대하여 새로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 치료적 접근(Brosi & Rolling, 2010), 폭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여성 내면의 강점과 자원을 강화시키도록 돕는 해결중심치료(Lee, 2007) 등이 있다. 한편 Murray와 Graves(2012)는 피해자 중심의 자조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 개인상담 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피해자 사이의 유대감 형성은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증대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한 상담은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피해여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갖는 한계와 아쉬움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이 상담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지연, 이은설, 2005),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배수희, 손승영, 2016; 박경은, 유영권, 2017)를 비롯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과 관련된 연구(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등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여성의 상담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주제로 손경숙(2017)의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손경숙(2017)은 데이트폭력을 유발시키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계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관계 갈등 점수가 낮아지고 데이트폭력의 평균 점수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도, 실제 피해여성이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문제로 상담을 경험한 여성과의 회상적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상담경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 이들과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주호소문제로 상담을 받은 여성들의 상담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가운데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였다. 온라인 매체는 블로그 및 구인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것은 연구자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앞서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 연구 윤리에 따라 참여자 몇 명을 다른 상담기관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상담경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담사 및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종결한 내담자들을 참여자로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연구자의 편견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모집 공고에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각각의 범주를 소개하였고, 다음의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참여자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다. 처음 공지 후 3주일 안에 12명의 참여자들이 모집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참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증대된 영향이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관심 및 연구 참여자들이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은 기대감이 높았던 영향이 있었다. 초반에 모집된 참여자들 가운데 폭력의 범주가 다소 가벼운 통제와 간섭 수준에 머물렀던 참여자는 제외했으며, 아직 데이트 중에 있거나 상담 종결 후 3년 이상을 지낸 참여자들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회상적 인터뷰를 하는 과정

에서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 경험을 한 이후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낸 경우에는 기억의 오류가 일어나거나 기억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부여가 새롭게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Olivera, Braun, Gómez Penedo., & Roussos., 2013). 또한 연구자와 시간 조율이 어려웠던 2명의 참여자 또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은 총 6명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20살에서 최대 28살로 20대 연령분포도를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동갑 및 다양한 연령차의 연상 및 연하 남자친구와 교제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반으로 평균 1년 6개월의 교제 기간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모두 남자친구와의 폭력적인 관계를 종결했으며, 이별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외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상담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평균 1년 1개월의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은 22세 대학생으로 정신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고, 세 군데에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6개월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2는 24세 대학생으로 정신적, 언어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두 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6개월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3은 20세 대학생으로 정신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두 군데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가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9

월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4는 28세 직장인으로 정신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세 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6개월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5는 25세 직장인으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세 군데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가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1년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6은 26세 취업 준비생으로 정신적, 언어적, 성적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두 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마지막 상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9개월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중순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뤄졌다. 자료는 참여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전달했으며, 인터뷰 도중 및 종료 이후에라도 연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인터뷰 자료가 활용되지 않을 것이란 비밀보장의 원칙을 전달하였다. 인터뷰는 두 군데에서 진행됐는데, 연구실과 서울 소재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이뤄졌다. 인터뷰는 대부분 1차에 걸쳐 이뤄졌는데, 2명의 참여자들에게는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여 2회의 인터뷰를 더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2차 인터뷰는 30분,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초기 본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으며,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형태로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이뤄졌다. “상담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건 뭔가요?”, “언제가 가장 힘들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상담자의 어떤 반응이 도움이 되셨나요?”, “상담자에게 안 좋은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담이 어떻게 흘러간 것 같나요?” 이외, 구체적인 추가 질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초기상담에서 실망을 하셨는데도,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실망하셨던 상담과 이후의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무엇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상담하시면서 어떤 정서가 많이 느껴지셨나요?”, “전환기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죄책감은 어떻게 해소되어 나갔는지요?”, “심리적인 고통은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는데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질문들로 인터뷰 한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여 그 다음날 전사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은 Husserl(1948)을 중심으로 정립된 질적 연구 방법이며, 하나의

사건 및 현상을 체험하는 한 사람이 그 체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탐구하는 철학적 사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그 체험이 정말로 어떠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체험자의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을 채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이 상담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서도 현상학은 체험자가 경험한 하나의 현상을 가장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 드러내 줄 수 있다. 상담경험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양자 사이의 상호 관계적 경험을 통해 이뤄진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라는 심리적 상흔을 안고 있는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이라는 특수한 체험의 의미와 본질로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상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데이트폭력 피해여성과의 상담에 있어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하여 적절한 개입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험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상황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근거이론이나 현상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사례연구와 달리(Creswell, 2007), 현상학은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이 그 자체로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 자료는 Giorgi(1985)의 방법에 따라 4단계를 거쳐 분석되었다. 이 분석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현상학 연구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지식과 편견에 대한 괄호 치기(bracketing)를 실시

하였다. 연구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앞서 몇 번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 주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연구자의 선지식을 명료화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상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았다. 연구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여성의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주제로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가졌던 느낌이 본 연구 분석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했다. 또한 관련 연구들을 더 탐구함으로써 이론적, 경험적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작업을 토대로 첫째,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들을 파악해보았다. 둘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이라는 독특한 체험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그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 줄 수 있도록 심리학적, 상담학적 관점에서 의미단위를 묶었다. 셋째, 묶여진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하면서 그 체험의 본질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넷째, 기술된 의미단위에 따라 연구 자료들을 통합해 제시하였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자는 상담이 진행된 초반, 중반, 후반에 따라 각 의미단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현상을 매개하는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밝혀 과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근거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거이론에서와 같은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를 제시할 때 체계성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과정 평가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1)의 ‘감사자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본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며, 연구 참여자 및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 피해여성에게도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다. 먼저, 연구자는 2명의 동료 연구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한 명은 현상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상학 연구를 통한 소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었다. 먼저 의미단위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앞서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에서 의미단위가 유사하게 겹치는 주제들이 있어, 그러한 주제들을 다시 범주화하여 대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의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과 ‘의심’으로 대주제를 분류하였는데,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에 의해 ‘상담에 대한 불신’으로 재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의미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다시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복합감정의 순환을 상담 속에서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6개의 소주제를 하나의 대주제로 묶어 제시하였다. 그 복합감정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한 양가감정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복합감정으로만 이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소주제를 3개씩 나누어 묶어 ‘양가감정의 교차’와 ‘부정적 복합감정의 순환’이라는 두 개의 대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검토를 통해 수정된 결과를 본 연구의 참여자 2명에게 부탁하여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한 명은 자신의 경험을 잘 드러내 준 것 같다는 피드백을 해 주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피드백을 해 주었다. 두 명 모두 연구 결과에서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은 없다는 피드백을 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당시, 연구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했지만 하지 못했던 다른 피해여성에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결과는 자신이 느껴보지 못한 것이지만 대체로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유사했다는 피드백을 해 주었다.

연구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은 38개의 소주제와 12개의 대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피해여성의 상담 경험의 본질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 ‘상담에 대한 불신감’, ‘문제인식의 전환’,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 ‘방어기제의 해체’, ‘저항감과 의 분투’, ‘양가감정의 교차’, ‘부정적 복합감정의 순환’, ‘죄책감의 감소’, ‘수용감의 증대’, ‘유대감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주제를 구성하는 소주제는 38개로 분류되었다. 각 주제들은 상담 경과에 따른 내담자의 경험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대주제와 소주제를 요약한 표이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

참여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번의 상담 경험이 있었는데,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첫인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무력감 및 상담에 대한 불신감으로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 (Anderson et al, 2012; Nicolaidis et al, 2009)과 상반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을 갖고 있었다. 또한 폭력적인 관계를 끝냈지만, 심리적인 후유증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담함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견뎌오다가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상담에 의지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담 동기는 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과의 상담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초기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Murray & Graves, 2012).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막막함

막막해짐과 함께 멍칫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그래서 빨리 이 케이스를 접어야지 제가 생활할 수 있겠다

표 1.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의 주제

| 대주제 | 소주제 |
|-----------------------|--|
|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막막함 ·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압박함 ·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함 · 위로받기를 갈망함 |
|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흔을 없애고 싶었음 ·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음 · 이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랐음 |
| 상담에 대한 불신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과 다른 상담진행에 당황함 · 죄책감이 자극됨 · 상담자를 불신함 · 도움 여부를 의심함 |
| 문제인식의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함 ·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 · 자신의 심리만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심리상태를 이해함 ·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김 ·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용함 |
| 방어기제의 해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을 우회하는 자신을 깨달음 · 괜찮은 척 하기를 포기함 · 무너져도 괜찮겠다는 안정감이 증대됨 |
| 저항감과 분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약한 자기를 만나기 싫어 저항함 · 회상하기 힘들어 저항함 ·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아 저항함 |
| 양가감정의 교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련하면서도 힘들 · 기쁨과 슬픔이 교차함 · 쓸쓸하면서도 편안함 |
| 부정적 복합감정의 순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멍해지며 우울감이 밀려옴 · 두려움과 우울감이 반복됨 · 슬픔과 외로움을 느낌 |
| 죄책감의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책감이 줄어들기 시작함 · 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음 |
| 수용감의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받는 느낌이 증대됨 · 상처 입은 자신을 수용함 · 극복이 아니라 견딜 정도로 살아감 · 힘든 마음을 견디는 힘이 증대됨 |
| 유대감의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가 아님을 인식함 · 나만 힘든 것이 아님을 인식함 · 타인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 |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1)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함

상담을.. 저번에.. 받다가 포기해서 이제 안 받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사례5)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함

최후 수단이 하나 있다? 그렇게 약간 그물망이 있었던거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도, 정말 큰 맘 먹고 가야겠다 해서 가면 그래도 도움이 됐던.. 그런게 있었죠. (사례3)

위로받기를 갈망함

그냥 누가 좀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바랬던거 같아요. 그냥 좀 되게 sympathize하기를 바랬던거 같아요 그런거를.. (사례4)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경험을 하였다. 자신의 심리 안에 새겨진 폭력으로 인한 상흔을 없애므로 폭력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지속한 여성은 폭력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이 높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애착 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부족한 경우 폭력적인 대상에게 의존하거나(Kaura & Lohman,

2009), 폭력을 잘 견디면 언젠가는 대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에 머물기도 한다(이정은, 2007). 따라서 폭력적인 관계를 중단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폭력에 저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피해여성이 내적 힘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가진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똑같은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정의감으로 확산되었다. 참여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해리가 되거나 기억이 망각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자신의 피해경험과 관련된 기억이 사라져 버릴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고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겨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흔을 없애고 싶었음

상담을 받아선.. 음.. 그냥..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자유로워지면은.. 거기에 제.. 제게 남은 흔적 같은 게 없길 바랬어요.. 그니까 후유증이거나 아니면은.. 그런게? (사례2)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음

내가 갖지 못했던거니까요.. 네..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경험 했을 때..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례6)

이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랐음

주변에 말할 수 있는 데도 딱히 없으니
까 이대로 미치거나 정말 잊어버리는 것
까지 되면 (축약) 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저까지 부정하는 순간... 가
해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사례2)

상담에 대한 불신감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상담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기관에서 진
행하였던 상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
었다.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도
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던 참여자들은 인터넷
을 찾아보거나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에서의 첫 상담 경험은
자신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
로 인해 상담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는 경험
을 하기도 하였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환
경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등 참여자들은 예상
과 다른 상담진행 및 환경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렵
게 털어 놓았는데, 전문적인 상담지식과 기술
이 부족해 보인 조력자들이 그 문제를 피해여
성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지적했을 때는 참여
자들의 죄책감이 자극되기도 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지적했듯이 폭력의 문제를 가진 피해
자 상담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이다(Murray & Graves,
2012). 또한 참여자들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
기 전, 상담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며 이
해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심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다른 상담진행에 당황함

두려움 해소하러 갔는데 해소할 상태
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사실을 여러 군데를 갔는데 처음
인터넷을 찾아보고...(축약) 정말 마땅치가
않아서.. (사례1)

죄책감이 자극됨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
린..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고 본다고 이제 솔루션이 나와서 그때
또 이제 마음을 접고, 아.. 상담을 못할
거 같다.. (사례1)

상담자를 불신함

그게 어쩔 때는 내 얘기가 받아들여지
는구나 싶다가도 어쩔 때는 내 얘기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나? (축약) 이 사람
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찌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사
례3)

도움 여부를 의심함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여기서 풀
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었어
요. (사례4)

문제인식의 전환

참여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
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으며, 지금의 상황이 변하거나 가해자가 새 사람이 되어 죄를 뉘우치게 되는 일은 자신의 환상(이정은, 2007; 배수희, 2015)에서 비롯된 기대임을 깨닫게 되었다. 외부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 소망은 좌절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심리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문제의 초점을 폭력과 관련된 사건 중심에서 그 폭력으로 인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함

상담을... 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유지됐던거 같아요... (상담을 해도 그러니까?) 네네... 상담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으니깐.. 그리고... 으흐흐. 어떻게 모.. 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나쁜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례2)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

아..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구나.. 세상에? 그걸 쪼끔 이해를 어느 순간부터.. (축약) 상담 했을 때 안들리던거 이해를 했던거 같아요. (사례4)

자신의 심리만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제가 많이 저를 담금질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거고, (사례6)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게 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우며, 때로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감정기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설명하고 감정 반응을 해 주는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또한 상담자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자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됨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제시한 것과 같이 폭력의 문제를 가진 여성과의 상담에 있어 ‘안정감’의 문제를 무엇보다 잘 다뤄야 하는데 (Murray & Graves, 2012), 이 안정감은 상담자를 통해 따뜻함과 수용 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현재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견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현재 심리상태를 이해함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 하나 집어 가면서 순간에 엑시던트랑 아니면 그때 심정? 그 엑시던트랑 겹쳐서 이러이런 이런.. 흐름으로 심정이 바뀌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돼서 또 계속 이런 마음으로 계셨을거다..(축약) 조금 이제 괜찮게 진행이 됐었구나.. 마음이 놓였어요. (사례1)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김

나중이야 제가 저한테 차차 괜찮아 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시니까.. 차차 괜찮아질 거다.. 그래도 저로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느꼈고 네.. (사례5)

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괜찮은 척, 덤덤한 척을 하다가, 상담에서 그러한 방어기제가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폭력 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낼 때 상담자의 차분한 반응은 참여자들에게 더욱 큰 안정감을 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용함

괜찮아요.. 시간 지나야 되요.. (축약) 억지로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식으로 제 말을 한번 되돌려주는.. 말이 참.. 편했던거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사례3)

핵심을 우회하는 자신을 깨달음

오늘 하루 같은걸 얘기해보라고 하면 차가 왔었고 아니면은 날이 눈이 예뻐고 이런 얘기만 했고.. 햇살이 잘 들어오고 그.. 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사람에게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2)

방어기제의 해체

참여자들은 상담자와 라포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 왔던 방어기제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제시했듯이 폭력의 문제를 가진 여성들은 심리적 후유증으로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며, 문제의 핵심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Walker, 2012), 폭력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표현을 억제하며, 더욱 갈등회피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만든다(이지연,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핵심 문제를 꺼내어 이야기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상담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며 직면했을 때 자신이 핵심을 우회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폭력의 희생자, 폭력의 피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싶

괜찮은 척 하기를 포기함

그때 좀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억지로.. 모.. 다 괜찮은 척 한다거나.. 그런 게 쯤 있었는데, 덤덤한 척을 정말 열심히 했던거 같아요.. 잘 안되지만.. (음..) 그러다가 덤덤한 척을 못했을 때는 소리 지르고 막 음. 저 스스로도 약간 제가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사례3)

무너져도 괜찮겠다는 안정감이 증대됨

상담 중에 처음 상담을 갔을 때는 울기 바빴던거 같아요.. (축약) 제가 이렇게 울 때 차라리 저보다 저쪽이 담담하면 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사례3)

저항감과 분투함

참여자들은 상담 도중 상담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여러 번 느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자기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도저히 상담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내면의 자원이 부족한 피해여성은 폭력경험으로 인해 더욱더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데(Carmen, Ricker, & Mills, 1984),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취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사건과 관련해 기억을 떠올려야 할 때면 더욱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음에도, 상담이 끝난 후에는 심리적 충격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상담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껴 상담을 중단하고 싶은 갈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한 자기를 만나기 싫어 저항함

그래갖고 막 튀쳐 나가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저.. 막 하다가 나가버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어, 어떨 때 튀쳐 나가셨어요..) 제 연약한 구석이 나온다 싶으면 못 견디겠는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래서 나와 버렸어요. (사례4)

회상하기가 힘들어 저항함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잊혀지고 당했던 사실이 안잊혀지고 계속 끌려 나가는거니까.. (음) 안잊혀지고 그게 이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 그쵸.. 그 기억들이. 그래서 제가 되게 발목 잡히는거 같아서.. (사례1)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아 저항함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 이게.. 진실.. 사실은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말한대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 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닌데, 뭘 어떡하라는거예요 그런 마음... (사례6)

양가감정의 교차

참여자들은 양가감정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양가감정의 교차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꺼내어 그 당시 느꼈던 다양한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후련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힘든 마음이 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폭력의 희생자로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지켜내기 위한 시도들을 강박적으로 해 왔는데, 상담을 통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씩씩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련하면서도 힘들

후련하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느낌이라.. 제 기억을 다시 꺼내서 차르르 펼치는 거라서 되게 힘이 들었어요.. 곱씹는 느낌.. 이.. 힘들었던 기억을 다시 곱씹으면 다시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가 힘들었어요.. 앞뒤로 하루를 날렸어요.. (사례3)

기쁨과 슬픔이 교차함

그땐 기뻐어요. 왜냐면.. 기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냥 .. 별로 사람.. 제가 (웃음) 자존심도 켜고 하니까.. 네.. 약간 그런데에서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거나 아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근데. 그렇게 계속 해 왔음에도 아.. 내가 계속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슬펐죠 조금.. (사례2)

썩썩하면서도 편안함

썩썩.. 한.. 썩썩했어요.. 네.. 모... 근데.. (웃음) 그걸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괜찮게 생각하는게..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길 했었거든요. 너는 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주입을 시켰거든요.. 그.. 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편안한 느낌인거 같아요. (사례5)

부정적 복합감정의 순환

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피해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은 우울, 분노, 불안, 슬픔, 혼란감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며(Banyard & Cross, 2008; 안귀여루, 2002), 상담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다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폭력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화를 내거나 울기도 했는데, 많이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멍해지며 우울감을 깊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해남성과의 경험이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두렵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복합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은 참여자들이 관계에서 기대했던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는 동안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멍해지며 우울감이 밀려옴

멍해지죠.. 아무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울하고.. 그 이후로.. 그래서 더 힘든거 같아요. 후유증 같이 갔다오면 며칠을 그 기억이 다시 선명해 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흐려졌다 다시 떠올리고.. 흘러졌다 떠올리고.. 반복이 되니까.. 그계.. 되게 힘들었던거 같아요.. (사례3)

두려움과 우울감이 반복됨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서? 빨리

자야겠다 해서 이제 집에 와서 바로 7시에 잠이 들었다가? 한.. 3시 정도에 깨거나 한두시에 깨요. 그러면 새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축약) 무서움에 또 우울감이 오고.. 그러죠.. (사례1)

슬픔과 외로움을 느낌

그게 왜 니 잘못이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아아.. 그랬는데 그 말이 안들렸어요.. (음... 그랬구나.. 마음이 어떠셨는데요....) 그냥 되게 슬프고 외로웠어요.. (사례4)

죄책감의 감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죄책감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물건을 던지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어 싸보이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많이 해소하였던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의 책임이 가해남성에게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죄책감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죄책감이 줄어들기 시작함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 했을 때 울었 던거 같어요.. 니가 계속 너를 탓하고 있지 만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례2)

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음

제가 그 친구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저한테 물건을 던진대거나 그게 타당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던거 같아요.. 이제.. 음... 저를 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잘못이 아닌걸 또 알아야 되구요, 객관적으로 보고.. (사례3)

수용감의 증대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수용감이 증대되는 경험을 하였다. 상담자를 통해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없애거나 아픔을 극복하기 보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되 견딜 만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복이나 즐거움 등이 다시금 찾아오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거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힘든 마음이 때때로 올라오긴 하지만, 상담 이전보다는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수용 받는 느낌이 증대됨

보통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 나 저사람 죽이고 싶다 말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거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길 해주시니까 좀 덜.. 그랬죠.. (사례3)

상처 입은 자신을 수용함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인체로 좋아할 수 있고, 그게 많이 안정이 됐던 거 같아요.. (사례5)

극복이 아니라 견딜 정도로 살아감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축약) 별로 좋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도 견딜 정도로 괜찮은..거 같아요.. (사례2)

힘든 마음을 견디는 힘이 증대됨

그.. 상처가 새겨지는.. 그니까.. 감정 같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새겨지는 깊이 같은 게.. 낮아진거 같아요.. (사례2)

유대감의 확장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유대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상담 초반 참여자들은 자신만 폭력의 피해자이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외로움을 느끼던 중, 상담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며, 누구나 힘든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유대감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제시한

Murray와 Graves(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유대감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해 준다.

혼자가 아님을 인식함

모모.. 힘들었겠네요.. 뭐 그러면 어땠겠어요.. 뭐 그런거 얘기하고.. 뭐뭐 사람들 모모 하기도 해요 그런거 들으면 괜히 위로 받는거 같고, 나만 혼자 아닌거 같고.. 약간.. (사례4)

나만 힘든 것이 아님을 인식함

가족폭력 같은 데를 통해서 만났는데.. (축약) 애길 나눴을 때 제 주변에도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깐..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어떻게.. 사는데.. 모.. 다 좋지만은 않다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사례2)

타인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이제 다른 케이스.. 데이트폭력의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져서.. (축약) 가장 강하게 저같이 안 헤맸으면 좋겠어요. 심리상담 받으실 때.. (사례1)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문제로 상담을 6개월 이상 경험한 피해여성과의 회상적 인터뷰를 통해 상담 경험에 대한 체험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의 상담경험은 38개의 소주제와 12개의 대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피해여성들은 절박함과 폭력에 대항하고 싶은 정의감을 안고 상담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담환경과 진행과정에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상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해 상담을 그만두지만,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문제인식이 전환되고, 안정감이 증대되며 방어기제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였다. 상담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며 양가감정과 부정적 복합감정이 순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서서히 죄책감이 감소하며 수용감이 증대되고 유대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의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논의에서도 상담의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에 따라 내담자 차원, 상담자 차원에서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차원에서 상담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 초반 피해여성들이 가진 상담에 대한 동기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참여자들이 가졌던 상담에 대한 동기는 ‘절박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이 도저히 되지 않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없으며, 감정기복의 어려움 등으로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이러한 동기는 피해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내면의 동기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소개한 Anderson 등(2012) 및 Nicolaidis 등(2009)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준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연구들에서는 피해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는 외상적 기억으로 인해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불신감 및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상담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여성의 상담 동기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 다른 동기는 참여자들이 보인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이 있었다.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 여러 상담 기관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하게 된 데에는 가해남성에게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알고서도 묵인해 온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여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피해여성이 본래 가지고 있던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제시한 박하나, 장수미(2012), 신혜섭(2007), 장희숙, 조현각(2001), Kaura & Lohman(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피해여성이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달리 보면, 피해여성들이 폭력에 대항하는 저항감을

가질 때 변화를 향한 동기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피해여성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피해 여성의 복지에도 이타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여성의 회복의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심리적 자원을 밝혀낼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피해자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접근으로 피해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사례2는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을 못 이겨 경찰에 신고하려 갔을 당시, 남자친구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훈계에 놀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을 연인사이의 다툼으로 여겨 그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의 호소를 너무나 쉽게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상담의 동기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한계 짓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진단하여 대항하는 것은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의 문제를 순종적인 한국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으로 묵인할 수 있는데(배수희, 2015), 폭력의 문제를 피해여성이 아닌 가해남성을 비롯한 사회 전체 체계의 책임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상담에 대한 동기화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피해여성이 느꼈을 깊은 우울감 및 상담에 대한 불신감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고자 했던 동기를 드러

내어 지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힘을 피해여성이 가진 내적 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찰력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여성들이 보인 상담에 대한 동기는 충분히 조명되고 지지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에 대한 동기를 드러내 반영해주고, 지지해 주었을 때 힘들어도 상담을 지속해야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둘째, 연구 결과 상담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해여성이 상담에 대한 동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이 가진 신뢰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잘 다뤄져야 함이 나타났다. 피해여성 상담의 동기화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는 상담자에 대한 불신, 상담 자체에 대한 불신, 안전한 환경 제공의 실패 등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폭력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에서 안정감의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Murray & Graves, 2012), 이들이 보이는 방어기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폭력경험을 무덤덤하게 이야기 하여 정서적으로 억압된 모습을 나타내거나,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어 놓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가운데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어 놓기 까지 핵심을 우회하며 일상의 대화들을 하거나, 사람 및 관계 중심의 대화가 아닌 사건 및 사물과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피해여성이 새롭게 경험하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

를 드러내기까지 신뢰와 안정감을 시험해 보는 과정이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5는 상담자가 핵심을 우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감적으로 반영해 줬을 때 자신을 객관화해 보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제 서야 비로소 서서히 핵심적인 문제를 꺼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소개한 Murray 등(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피해여성이 상담자와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데이트폭력 피해여성과의 상담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선행연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죄책감'의 이슈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인데(Murray & Graves, 2012),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선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담자와의 만남은 피해여성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상담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상담자는 피해여성에게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미룰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그 문제를 피해여성이 스스로 발견하여 통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과거에 경험했던 상담 가운데 상담자가 사건의 전후를 자세하게 탐색하며, 피해여성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상담자에 대한 분노와 상담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상담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피해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의 문제로 인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특별히 신뢰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Nicolaidis et al., 2009),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 상담중반에서는 피해여성이 문제의 인식을 전환하며, 자신이 가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다뤄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중기 단계에서 더욱이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상담 초기에 다뤄진 죄책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죄책감 이면에 자리해 있는 깊은 심리적 역동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잘 다뤄나가는 것이었다. 먼저, 피해여성의 문제인식이 전환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 왔던 방어기제의 해체가 일어난 것은 참여자들이 자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상처 입은 자신을 만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한 외적 환경은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닥들이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가해남성 및 폭력을 알고서도 묵인해 온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면 자신이 호소하는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참여자2는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묵인해 온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었고,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들을 죽이고 싶은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깊이 만나게 되고 외부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서서히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여성이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기 책임감을 갖고 다뤄 나가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Sabina와 Straus(2008), Walker(2012), 안귀여루(2002)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사고장애, 과각성, 긴장과 불안, 분노, 슬픔, 혼란감, 회피적 행동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을 확장하여, 피해여성이 상담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욱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참여자들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거나,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 양가감정의 교차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분노, 불안, 슬픔 등을 쏟아낸 이후 감정이 정화되는 후련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뒤이은 여파로 일정 기간 힘든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게 됐을 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고, 문제 인식이 전환되거나 자신의 방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씩씩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피해여성이 상담을 통해 이러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고, 연약한 자기와 화해를 이루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뒤이어 더 많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회복의 과정을 탐구해 본다면, 상담에서 피해여성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여 촉진

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여성이 갖는 죄책감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내면에 결핍된 사랑과 돌봄에 대한 욕구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박경은, 2017; 우현진 등, 2017). 달리 말해, 피해여성들이 호소하는 죄책감은 가해남성이 행사하는 폭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철수에 대한 두려움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최윤경, 송원영, 2014; 박하나, 장수미, 2012; 최윤경, 2012; 신혜섭, 2006),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가정에서 학대 및 방임과 같은 폭력의 희생자였던 경우가 많았다. 건강한 관계적 경험이 부족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사랑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받아들인 결과 폭력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해여성이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 신뢰롭고 공감적이며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이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믿고 긍정해 주며 아무리 잘못된 상상을 하더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남자친구의 폭력적 행동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Kaura와 Lohman(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한 관계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여성이 갖는 폭력적인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세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 후반에서는 피해여성의 회복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죄책감이 줄어든 결과는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적 경험을 통해 친밀한 대상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폭력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감이 증대된 것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들(Jackson et al., 2000; Walker, 2012)에서와 같이 피해여성의 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핵심적인 정서들이 충분히 다뤄진 이후 피해 입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로 경험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대감이 확장된 것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혼자서 아픔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피해여성의 회복의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적 개입이 실제 상담의 과정을 촉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으로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담자의 태도는 비판단적이며 지지적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온 피해여성은 죄책감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urray & Graves, 201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호소 문제를 들은 이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고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가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의 부정적 경험으로 상담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이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상담자의 비판단적이며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는 피해여성과의 라포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소개한 박

가람, 정남운(2008)의 연구에서도 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상담자의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 경청 및 공감과 이해, 위로였다.

상담자의 문제인식과 목표설정은 피해여성의 상담에 대한 동기 지속여부와 상담과정의 촉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담자는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의 정화를 촉진시켜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심리적 역동을 세심하게 살핀 접근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테이트 폭력의 핵심은 힘과 통제에 있기 때문에(Teen Voice, 2006), 상담자는 피해여성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임상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비판단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새롭게 시도한 실천전략들을 지지받음으로 새로운 긍정자원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자기 안에 감춰진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스스로 심리적, 상황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제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피해여성 회복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Murray et al., 2015). 참여자들은 힘들었던 때의 기억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느끼거나, 새로운 생각 및 활동들로 그것을 견뎌나가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새로운 통제력이 생성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임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피해여성이 잃어버린 자기 주도성과 통제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주도적인 설명과 교육 또한 피해 여성 상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될 수 있다. 특히 피해여성의 불안감을 다루는데 있어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견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심리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소개한 Sousa(1999)의 견해에서와 같이 피해여성은 상담자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담자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을 때 안정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뿐 아니라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한 폭력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 소개한 Foshee 등(2012) 및 손경숙(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훈련은 이후의 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상담자의 개입 시기는 피해여성의 통찰과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상담자는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죄책감의 문제를 다룰 때 문제 이면에 내재해 있는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갈등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개입시기에 따라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

를 각기 다르게 해소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4는 상담자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책임은 가해남성에게 있다는 설명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 돌봄과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의 철수로 인한 슬픔과 분노 등의 심리적 갈등이 충분히 해소된 이후에서야 죄책감이 서서히 줄어들며 폭력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소개한 김도애, 이은화(2003), 박경은(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심리내면의 역동을 세심하게 살핀 적절한 시기의 개입이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함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상담의 본질을 드러냄으로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와의 상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섯 명의 참여자들과의 회상적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각 내담자의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세심한 관계 역동을 모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대다수 20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연령대 피해여성들이 보고하는 상담경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상담자의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함께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상담했던 기관의 상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및 개입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과 개입 전략을 더욱 명료화 하여 각각의 이론적 접근에 따른 상담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담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더욱 세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도애, 이은화 (2003).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사례 연구: 폐어 배연의 분열적 방어와 도덕적 방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학회지, 11(2), 101-131.
- 김도연 (2018.01.30). 서울 여성 10명중 9명 “데이트폭력 당한적 있다”. 문화일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9_0000216517&cID=10801&pID=10800 에서 검색.
-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경은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하나, 장수미 (2012).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 피해여학생과 가해남성의 읊조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3(1), 33-52
- 배수희 (2015).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담론 분석. 젠더연구 13(20), 57-69.
- 배수희, 손승영 (2016).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26(1), 93-124.
- 서경현 (2009).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연구, 17(1), 71-80.
- 손경숙 (2017). 데이트폭력경험 여대생들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4(2), 19-42.
- 송영주, 장현아 (2017). 애착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111-140.
- 신혜섭 (2006).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5, 117-130.
- 신혜섭 (2007). 데이트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2(2), 149-170.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9(0), 5-75.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이유진, 여성신문. 신변보호요청 급증... '데이트폭력 피해자' 접수가 대부분 (2017.10.14) <http://www.womennews.co.kr/news/117510> 에서 검색.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8). 상담일반: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 9(2), 353-373.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0), 179-204
- 최윤경 (2012).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암묵적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암묵적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 Amar, A. F., & Gennaro, S. (2005). Dating violence in college women: Associated physical injury, healthcare usage, and mental health symptoms. *Nursing*, 54(4), 235-242.
- Anderson DK, Saunders DG, Yoshihama M, Bybee DI., & Sullivan CM. (2012). Long-term trends in depression among women separated from abusive partners. *Violence Against Women*. 9(7), 807-838.
- Banyard, V. L., & Cross, C. (2008). Consequences of teen dating violence: Understanding intervening variables in ecological context. *Violence Against Women*, 14(9), 998-1013.
- Brosi, M. W., & Rolling, E. S. (2010). A narrative journey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From victim to survivor.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8, 237-250.
- Carmen, E. H., Ricker, P. P., & Mills, T. (1984).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oiatry*, 141(1), 378-383.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e Hooge, I. E.,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11). What is moral about guilt? Acting “prosocially” at the disadvantage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462-473.
- Foshee, V. A., McNaughton Reyes, H. L., Ennett, S. T., Cance, J. D., Bauman, K. E., & Bowling, J. M. (2012). Assessing the effects of families for safe dates, a family-based teen dating abus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1, 349-356.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nsne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athaway, J. E., Mucci, L. A., Silverman, J. G., Brooks, D. R., Matthews, R., & Pavlos, C. A. (2000).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use of massachusetts women reporting partner abus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9, 302-307.
- Husserl, E. (1948).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Hamburg: Claassen & Goverst. An English translation Experience and Judgement: Investigations in the Genealogy of Logic. Translated by James S. Churchil and Karl Amerik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 Iverson, K. M., Shenk, C., & Fruzzetti, A. E. (2009).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women

- victims of domestic abuse: A pilot stud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242-248.
- Jackson, S. M., Cram, F., & Seymour, F. W. (2000).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23-36.
- Johnson, D., & Zlotnick, C. (2009). Hope for battered women with PTSD in domestic violence shelt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234-241.
- Kaura, S. A., & Lohman, B. J. (2009) Does acceptability of violence imp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Victimization, and Commitment Levels in Emerging Adul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6), 349-359.
- Kasian, M., & Painter, S. L. (1992).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3), 350-364.
- Lee, M-Y. (2007). Discovering strengths and competencies in female domestic violence survivors: An application of Roberts' Continuum of the Duration and Severity of Woman Battering.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7, 102-114.
- Murray, C. E., & Graves, K. N. (2012). *Responding to family violence*. New York, NY: Routledge.
- Murray, C. E, Horton, G. E, Johnson, C. H, Notestine, L, Garr, B, Pow, A. M., & Doom, E. (2015). Domestic violence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of safety planning: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 381-392.
- Nicolaidis C, McFarland B, Curry M., & Gerrity M. (2009).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ymptoms and mental health utilization associated with intimate-partner violence versus childhood abuse. *Psychosomatics*. 50(4), 340-346
- Olivera, J, Braun, M, Gómez Penedo, J. M., & Roussos, A. (201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former clients' perception of change, reasons for consultation,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termination. *Psychotherapy*, 50(4), 505-516.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 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 Sousa, C. A. (1999). Teen dating violence: The hidden epidemic. *Family &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56-374.
- Stein, M. B., & Kennedy, C. (2001). Major depressiv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morbidity in female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6, 133-138.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Teen Voice. (2006). *Dating violence power and control wheel*. Safe House Center.
- Walker, L. E. (2012). Battered women syndrome and self-defens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6(2), 321-334.

원고접수일 : 2018. 0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5. 28

게재결정일 : 2018. 07. 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Experience of Female Victims of Dating Violence

Younggweon You

Yonsei University

Kyungeun Park

Se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effective counseling approaches for clients who are suffering from dating violence.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women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nd counse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result, the counseling experience of the victims was categorized into 38 sub categories and 9 essential categories. Study participants were counseled who endorsed an-‘urgency to ask for help’, ‘a sense of justice against violence’, and feeling ‘uncomfortable about counseling’. Counseling techniques focused on problem recognition,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dissolution of the defense system and struggle with resistance. Experience of “the circulation of negative complex sentiments”, gradually experienced “decrease of guilt feeling”, “increase of courage”, and “extension of solidarity”. Results include both client and the counselor perspective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represen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domestic abuse, counsel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